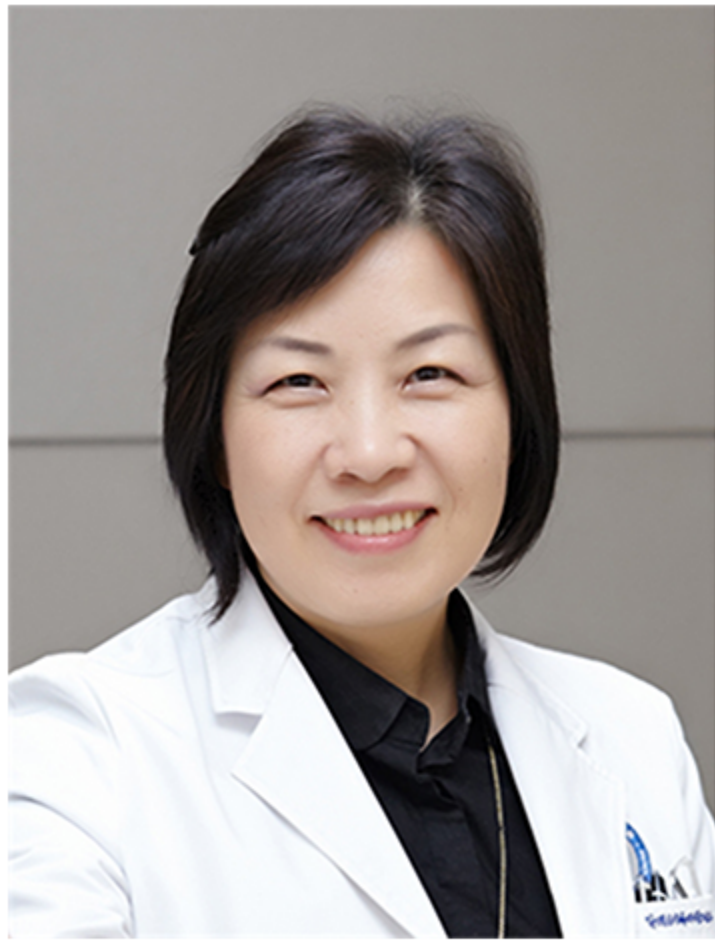


연구자 인터뷰



아주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장 아주의대 알레르기 내과 교수 박해심 교수

아주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 박해심 센터장님을 추천합니다. 국내 난치성 천식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계시고 최근에 천식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를 포함하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계신 분입니다

- 김태원 소장님 추천사 -

Q 아주대학병원 지역임상시험센터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아주대학병원은 도시형과 농촌형의 급-만성 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며 환자 임상 database를 전산화/체계화 하고, 실제 연구기획부터 설계/응용,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까지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도구 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학교 기반 만성 질환 코호트를 이용한 대단위 장기 임상 연구 지원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역 병원의 임상연구자/연구지원 인력의 교육과 양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Q 20년 이상 끊임없이 천식 연구에 몰두해 오면서 가지게 된 연구에 대한 가치관이 있다면?

A 임상연구자로서 진행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환자들의 진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 지향적 연구가 되어야 합니다. 후배 임상 연구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과학적 탐구 정신/학문에 대한 겸손한 자세와 함께 임상 연구에 필요한 윤리적 무장의 필요성입니다.

Q 센터장님께서 만드신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 환자들의 모임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임은 어떠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장님께 환자들의 모임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A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은 일반 천식보다 심한 중증 천식을 나타내고 동반 질환이 많은 복합 질환이라 추가 치료제 개발 등 미충족 수요가 많은 분야입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중개 연구를 통하여 환자들의 치료 성과와 만족도가 개선될 때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환자분들이 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수십 년 동안 외래로 한결같이 follow up 중이면서 자발적으로 다양한 임상시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로서 연구자에게 귀중한 의견을 내주어 상호 협력하는 동지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 국내 환자들이 신약 및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까요?

A 주요 대형 대학병원에만 집중된 임상시험이 1, 2차 기관에 광범위하게 분산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과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모든 병원이 진료 수익 창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에 방향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책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구 인프라 정비, 인력 양성, 정부 규제 완화/현실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1, 2차 병원의 참여도를 높여야 합니다. 제약기업과 CRO 등 연구 기관에도 질 높은 임상 연구자의 영입이 필요한데, 선진국에 비해 R&D 관련 예산이 매우 낮아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의료계 지도자, 각 임상 시험센터, 정부, 기업 등의 연합적 그리고 체계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KoNECT에서는 본부 홈페이지 내 [임상시험 모집정보](#) 게시판에 모집중인 임상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인터뷰

Q 지난 10년간 정부의 적극 지원과 우수한 임상시험 인프라를 통해 한국 임상시험산업은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으나, 5대 임상시험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 해결해야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A 한국 임상시험산업은 앞으로 과학적 수준 높은 임상 중개 연구 및 난이도 높은 조기 임상시험 수주 등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대학병원의 장점인 축적된 경험과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국내 기업들과 공유하여, 신약개발을 위한 산학체계가 개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국내외 기업들이 보다 조기에 신약개발과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초기 임상중개연구부터 POC 연구 디자인에서 수행까지 단계별 협업 모델이 중요합니다. 임상 연구자들이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중개 연구 전 과정에 관여하고, 기초연구자, 통계학자, 임상 약리학 전공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다면적으로 분석하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정확한 연구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신약개발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Q 연구자로서, 의사로서, 센터장으로서 앞으로의 비전과 포부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연구중심병원의 핵심인 좋은 임상연구자 양성과 임상시험센터의 역할 확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주대학병원 임상시험센터의 연구 인프라를 발전시켜, 국내외기업들과 글로벌 수준의 임상중개연구 및 POC 임상시험을 위한 센터로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 연구자 및 관련 연구 인력의 양성에도 매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호 '연구자 인터뷰'는 박민수 교수님이 이어갑니다.
